KOSDAQ SMALL-CAP RESEARCH

액트로 290740 · 카메라부품·검사장비

혼재

스마트폰 카메라를 흔들림 없이 움직이게 하는 부품(액추에이터)과 그 부품·반도체를 검사하는 장비를 만들어 삼성 등에 공급하고, 최근 자동차·로봇 쪽으로 사업을 넓히는 회사.

2026년 11월 25일 종가 기준 · 선정 사유: 코스닥 거래대금 3위(277.3억), 11월 24일 상한가·25일 '1주당 1주' 100% 무상증자 결정 및 주권매매거래 정지 공시 발생. 북미 빅테크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평가 진입·전장부품 양산 등 신사업 재료 집중.

시가총액	주가	전일대비	거래대금	PER	PBR	부채비율	당좌비율
950억	9,920원	+2.90%	277억	12.48배	1.05배	66.19%	129.54%

쉬운 요약

본업은 흔들리는데 신사업 기대와 무상증자로 주가가 뛴 종목입니다. 액트로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떨림을 잡아주는 부품(액추에이터)과 반도체·부품 검사장비를 만드는 회사로, 2025년 매출 2,449억·영업이익 66억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들어 1분기(-5억), 2분기(-4억) 연속 영업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매출도 분기마다 줄고 있습니다. 다만 순이익은 흑자(25억, 17억)를 유지하고 있어 영업과 순이익 방향이 엇갈립니다.

11월 24일 상한가, 25일에는 **1주당 1주를 공짜로 더 주는 100% 무상증자**를 결정하며 1주 만에 40% 넘게 올랐습니다. 북미 빅테크 휴머노이드(로봇) 액추에이터 평가 진입, 전장(자동차 전자부품) 양산이라는 신사업 재료가 받쳐주고 있지만, **실제 매출로 확인된 숫자는 아직 없습니다.**

투자 포인트

1. 2025년 매출 2,449억·영업이익 66억으로 3년 만에 최대 실적, PER 12.48배로 코스닥 평균 대비 과도한 고평가는 아닌 수준
2. 삼성 갤럭시 Z폴드8 울트라 2억 화소 카메라 액추에이터 독점 공급(보도 기준) + 북미 빅테크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평가 진입이라는 신사업 두 축
3. 11월 25일 1주당 1주(100%) 무상증자 결정 — 주주환원 재료로 24일 상한가 포함 1주 +40.7% 급등

핵심 리스크

1. 2026년 1분기·2분기 연속 영업적자(-5억, -4억) — 본업 수익성은 아직 회복 전이며 매출도 623억→487억→526억으로 축소
2. 52주 최고 32,700원(2월) 대비 -69.7% 급락 이력 — 지금 반등도 무상증자·테마 수급 성격이 강함
3. 거래량이 20일 평균의 15.6배로 폭증 — 단기 매매 자금 주도 구간이며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 희석 착시 주의

주가·거래량 분석 최근 1년

주가(원)와 거래량 — 최근 1년 일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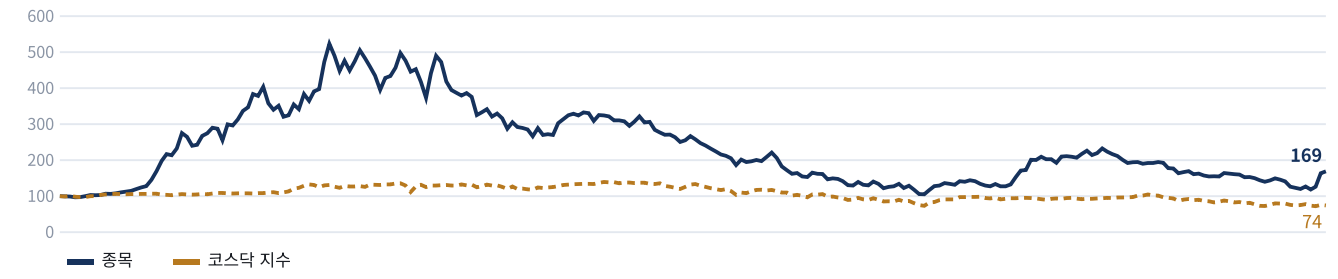


기간	당시 주가	주가 등락	코스닥 지수	지수 대비
1주 전	7,050원	+40.7%	-1.8%	+42.5%
1개월 전	9,120원	+8.8%	-10.5%	+19.3%
3개월 전	9,000원	+10.2%	-	-
1년 전	5,890원	+68.4%	-24.0%	+92.4%

구간	거래량	거래대금	1년 평균 대비
당일	2,582,920주	277.3억	14.7x
5일 평균	604,375주	59.3억	3.4x
20일 평균	165,056주	16.0억	0.9x
60일 평균	89,941주	9.5억	0.5x
1년 평균	175,832주	31.2억	1.0x

코스닥 지수 대비 = 종목 등락률 − 지수 등락률. 거래대금은 종가×거래량 근사. 출처: 네이버 증권 일봉, 20261125 기준.

종목 vs 코스닥 지수 (1년 전 = 100)



애널리스트 해석 — 이 가격·거래량이 말하는 것

① **1년 +68.4%는 '원점 복귀'에 가깝습니다.** 1년 전 5,890원에서 지금 9,920원이지만, 그 사이 2월 4일 52주 최고 32,700원을 찍고 7월 30일 4,550원까지 무너졌습니다. 고점 대비 -69.7%, 저점 대비 +118.0%. 이 종목의 1년은

'상승'이 아니라 **테마 폭등(2월) → 붕괴(7월) → 신사업·무상증자로 2차 반등(하반기)**의 세 구간입니다. 지금 가격은 1년 고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② **지금의 거래량은 '매매'의 크기입니다.** 당일 거래량 258만 주는 20일 평균(16.5만 주)의 15.6배, 5일 평균도 20일 평균의 3.7배입니다. 거래대금은 평소 하루 16억 수준이던 것이 당일 277억으로 폭증했습니다. 최근 20일 중 ±5% 이상 움직인 날이 5일. 이런 회전율은 장기 보유자가 아니라 **무상증자·신사업 재료를 노린 단기 자금**이 주도하는 전형적 패턴입니다.

③ **외국인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외국인 소진율은 현재 11.32%로 1개월 전 11.43%와 거의 같습니다. 1년 전 0.58%에서 크게 늘어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급등 구간에서 외국인이 대규모로 들어오거나 빠져나간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이번 상한가·급등은 **외국인보다 개인 중심 수급**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④ **시장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같은 1개월 코스닥 지수 -10.5% 대비 종목 +8.8%, 1년으로는 지수 -24.0% 대비 +68.4%로 크게 앞섰습니다. 그러나 이 초과 상승의 재료는 지수 흐름이 아니라 **개별 공시(무상증자)와 신사업 기대**입니다. 재료로 만들어진 가격은 재료가 소화되거나 권리락 이후 착시가 걷히면 빠르게 되돌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 가격은 '실적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무상증자와 로봇·전장 기대가 겹쳐서' 만들어진 가격이며, 2~7월의 급락 경험이 그 변동성의 크기를 이미 보여줬습니다.**

기업 개요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액트로는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렌즈를 움직여 초점·손떨림 보정을 하는 초소형 부품)**와, 반도체·부품을 검사하는 **검사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핵심 고객은 삼성전자 계열로, 갤럭시 프리미엄 모델에 카메라 부품을 공급합니다. 2023~2025년 매출이 1,568억→2,031억→2,449억으로 꾸준히 늘었으나 영업이익률은 1~3%대로 낮습니다. 2026년 들어서는 스마트폰 부품을 넘어 자동차 전장부품·로봇(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로 사업 체질을 바꾸는 중입니다.

사업·제품 구성

사업/제품	설명·비중
카메라 액추에이터	스마트폰 카메라의 초점·손떨림 보정용 초소형 구동 부품. 갤럭시 Z폴드8 울트라에 2억 화소 카메라 액추에이터를 독점 공급(보도 기준). 매출의 핵심 축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비중은 DART 사업보고서 II. 사업의 내용 확인 필요.
검사장비	반도체·카메라 부품 등을 검사하는 장비. 북미향 6축 검사기 초도 공급이 보도됨. 부품 외 장비 매출이 실적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신사업(전장·로봇)	자동차 전장부품 양산 돌입, 북미 빅테크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평가 진입. 2026년 체질 전환의 핵심이나 아직 매출 기여는 미확인.
매출 비중	사업부문별 정확한 비중은 DART 사업보고서 'II. 사업의 내용'에서 확인 필요. 언론 보도상 카메라 액추에이터가 주력이며 신사업은 양산 초기 단계.

고객과 판매 구조

1차 고객은 **삼성전자 계열(갤럭시 프리미엄 모델)**로,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카메라 사양과 판매량이 액트로 매출을 좌우합니다. 갤럭시 Z폴드8 울트라 2억 화소 액추에이터 독점 공급(보도 기준)은 기술력의 증거이자 동시에 소수 고객 의존을 보여줍니다. 2026년부터는 **자동차 부품사(전장)와 북미 빅테크(휴머노이드 로봇)**로 고객군을 넓히는 중이며, 북미 빅테크의 '정식 수주·평가 진입' 보도가 있으나 계약 규모는 공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객 구조와 매출 비중은 사업보고서 매출 현황 주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 구도

카메라 액추에이터·모듈 분야에서는 **엠씨넥스, 자화전자, 코아시아(코아시아씨엠), 삼성전기** 등과 경쟁하며, 삼성전기·자화전자처럼 규모가 크거나 수직계열화된 업체 대비 액트로는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검사장비에서는 반도체 검사장비 기업들과 경쟁합니다. 액트로의 상대적 강점은 '프리미엄 고화소 액추에이터 독점 공급 레퍼런스'와 '부품+장비를 함께 하는 구조'이고, 약점은 소수 고객(삼성) 의존과 낮은 영업이익률(1~3%대)입니다. 신사업(로봇·전장) 선점이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으나 아직 검증 단계입니다.

산업 밸류체인 카메라 액추에이터 — 부품 소재에서 로봇·전장까지

카메라 액추에이터 산업은 위로는 자석·코일·칩 같은 소재·부품에, 아래로는 스마트폰 제조사의 모델 사양과 판매량에 묶여 있습니다. 액트로는 이 사슬의 **중간(액추에이터 제조·검사장비)**에 있으며, 전방이 스마트폰 한 곳에 쏠려 있던 것을 자동차(전장)·로봇(휴머노이드)으로 넓히려는 전환기에 있습니다.

① 소재·부품	›	② 액추에이터·검사장비 제조	›	③ 모듈·세트 제조	›	④ 최종 수요
자석·코일·구동칩·OIS 드라이버 IC 공급사 (국내외 전자부품사)		액트로, 자화전자, 엠씨넥스, 코아시아 / 검사장비사		삼성전기, 카메라모듈 업체, 스마트폰·전장·로봇 세트 제조사		삼성 갤럭시 등 스마트폰, 자동차(전장 카메라), 휴머노이드 로봇

밸류체인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1. **전방이 스마트폰 한 곳에 쏠려 있다.** 매출이 삼성 갤럭시 플래그십의 카메라 사양·판매량에 좌우된다. 갤럭시 판매 둔화나 사양 하향은 곧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 2026년 분기 매출이 623억→487억→526억으로 줄어든 배경이다.
2. **영업이익률이 구조적으로 낮다.** 2023~2025년 영업이익률이 1.19~2.99%에 머문다. 부품을 세트사에 납품하는 구조에서 단가 협상력이 약하고, 검사장비 매출 변동이 겹쳐 수익성이 쉽게 흔들린다.
3. **로봇·전장은 '새 시장'이지 '지금의 매출'이 아니다.** 북미 빅테크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는 아직 '평가 진입' 단계이고 전장은 '양산 돌입' 보도 수준이다. 매출 기여가 공시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대이지 실적이 아니다.
4. **로봇 액추에이터는 카메라와 기술 뿌리가 같다.** 둘 다 정밀 구동 제어라는 점에서 액트로의 기존 역량이 로봇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다. 다만 로봇용은 내구성·토크 요구가 달라 신규 인증과 레퍼런스가 필요하다.
5. **무상증자는 사업가치를 늘리지 않는다.** 1주당 1주 무상증자는 주식 수를 2배로 늘리고 주당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는 '회계적 분할'에 가깝다. 기업 가치 자체는 변하지 않으며, 권리락 이후 착시가 걷히면 가격 조정이 올 수 있다.

어떤 이슈에 얼마나 민감한가

영향 요인	방향	민감도	왜 그런가
삼성 갤럭시 플래그십 사양·판매량	+	매우 높음	매출의 핵심이 삼성향 카메라 액추에이터. 고화소 채택 확대는 호재, 판매 둔화는 직접 악재
북미 빅테크 휴머노이드 로봇 투자	+	높음(기대)	로봇 액추에이터 평가 진입. 실제 수주·양산 공시가 나와야 실적으로 연결
자동차 전장부품 양산	+	중간	2026년 하반기 양산 돌입 보도. 매출 기여 규모·시점이 확인되어야 함
검사장비 수주 변동	±	중간	북미향 6축 검사기 초도 공급 등. 장비 매출은 들쭉날쭉해 분기 실적 변동성을 키움
스마트폰 부품 단가 인하 압력	−	높음	세트사 대비 협상력이 약한 구조. 낮은 영업이익률의 원인
무상증자·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이벤트	±	높음(주가)	100% 무상증자, 자사주 전량 소각이 단기 주가를 크게 움직임. 실적과는 무관
로봇·AI 테마 수급	±	매우 높음(주가)	휴머노이드 테마 강세 시 동조 상승, 식으면 같은 속도로 되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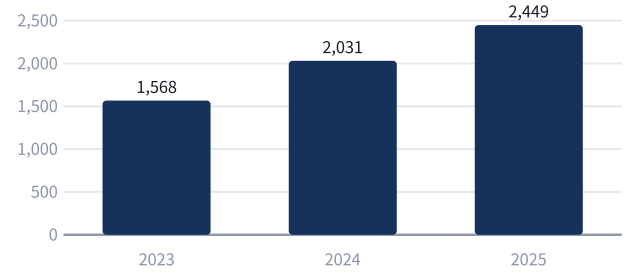
실적 분석 연간·분기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	1,568	47	57
2024	2,031	24	15
2025	2,449	66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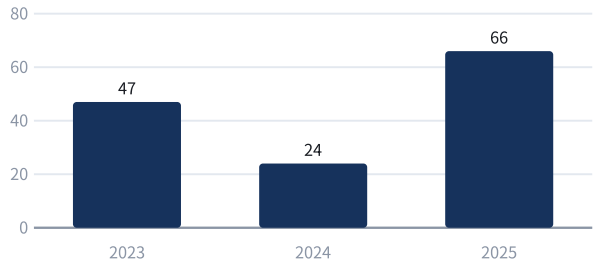
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5.2Q	583	28	1
25.3Q	713	26	43
25.4Q	623	21	33
26.1Q	487	-5	25
26.2Q	526	-4	17

단위: 억원 · 출처: DART 사업·반기·분기보고서 기반 공개 재무데이터. (E)는 시장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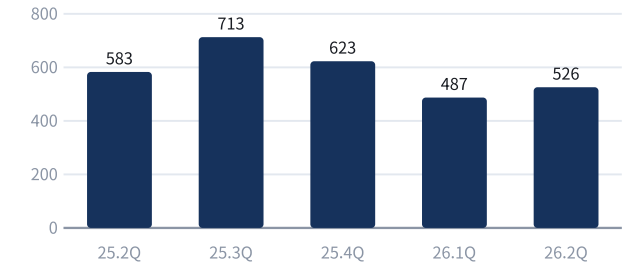
연간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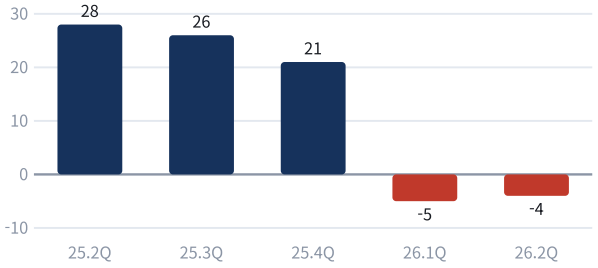
연간 영업이익



분기 매출액



분기 영업이익



애널리스트 해석 — 숫자 뒤의 이야기

외형은 커졌는데 이익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매출은 1,568억(2023) → 2,031억(2024) → 2,449억(2025)으로 2년 만에 56% 늘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47억 → 24억 → 66억으로, 매출이 크게 늘어도 영업이익률은 1~3% 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2024년에는 매출이 463억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23억 줄었습니다. **외형 성장이 수익성으로 연결되지 않는, 전형적인 저마진 부품사 구조**입니다.

2026년 들어 본업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분기 매출이 25.4Q 623억 → 26.1Q 487억 → 26.2Q 526억으로 줄었고, 영업이익은 21억 흑자에서 -5억, -4억으로 연속 적자 전환했습니다. 전방 스마트폰 수요 둔화와 신사업 초기 비용이 겹친 것으로 추정되며, 이 부분은 사업보고서 부문별 손익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적자인데 순이익은 흑자인 점이 특이합니다. 26.1Q는 영업이익 -5억인데 순이익 25억, 26.2Q는 영업이익 -4억인데 순이익 17억입니다. 영업 밖에서 이익이 났다는 뜻으로, 보유 지분·금융자산 평가이익이나 환이익 등 **일회성 영업외수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3월 타법인 주식 취득 공시와도 연관될 수 있어, 영업외손익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영업외이익이 반복되지 않으면 순이익도 영업이익을 따라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 자체는 양호합니다. 부채비율은 2026년 6월 66.19%로 낮고, 당좌비율도 129.54%로 100%를 넘깁니다. 유보율 1,552%로 쌓인 자본도 두텁습니다. 다만 PBR은 25.4Q 2.03배에서 26.2Q 1.09배로 내려왔는데, 이는 주가 급락(32,700원→저점)에 따른 것이지 자본이 늘어서가 아닙니다. 100% 무상증자는 이 자본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회계 처리로, 기업 가치 자체를 늘리지 않습니다.

호재 주가에 힘이 되는 요인

확인된 호재와 기대 요인

2025년 역대 최대 실적 — 매출 2,449억·영업이익 66억

매출이 3년 연속 늘어(1,568억→2,031억→2,449억)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2024년 24억에서 66억으로 회복했습니다. ROE는 10.37%로 자본 효율도 개선됐습니다. 외형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긍정 요인입니다.

출처 · DART 감사보고서 2026.03.18

삼성 갤럭시 Z폴드8 울트라 2억 화소 액추에이터 독점 공급

삼성 프리미엄 폴더블 모델에 2억 화소 카메라 액추에이터를 독점 공급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고화소·고사양 부품을 단독으로 맡는다는 것은 기술 경쟁력과 안정적 레퍼런스를 보여줍니다. 다만 기사 기준이며 계약 규모는 공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 이투데이·파이낸스스코프 2026.08.03

북미 빅테크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평가 진입 + 전장 양산

북미 빅테크의 차세대 휴머노이드(로봇) 액추에이터 평가에 진입하고 자동차 전장부품 양산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스마트폰 한 곳에 쏠린 매출 구조를 로봇·자동차로 넓히는 시도로, 성공하면 밸류에이션 기준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출처 · 프라임경제·핀포인트뉴스 2026.10.01·11.22 / 유진투자증권 리포트 2026.11.17

100% 무상증자 결정 — 주주환원 재료

11월 25일 보통주 1주당 1주를 배정하는 957만1470주 규모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주식 수가 2배로 늘고 거래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기대돼 단기 주가 재료로 작용했으며, 24일 상한가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기업 가치를 늘리는 이벤트는 아닙니다.

출처 · DART 2026.11.25 / 연합뉴스·뉴스핌 2026.11.25

자사주 전량 소각 — 주주가치 제고

10월 1일 자기주식 49만주(발행주식의 4.9%)를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소각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실질적 주주환원으로, 무상증자와 함께 주주친화 정책을 강화하는 흐름입니다.

출처 · 뉴스핌·마켓인 2026.10.01

악재 반드시 감안할 위험

확인된 악재와 리스크

2026년 1·2분기 연속 영업적자

25.4Q 영업이익 21억 흑자에서 26.1Q -5억, 26.2Q -4억으로 연속 적자 전환했습니다. 분기 매출도 623억→487억→526억으로 줄었습니다. 2025년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직후 본업이 꺾인 것이라, 신사업이 매출로 확인되기 전까지 실적 모멘텀은 약합니다.

출처 · DART 분기보고서 기준 2026

영업적자인데 순이익 흑자 — 영업외이익 의존

26.1Q·26.2Q 모두 영업이익은 적자인데 순이익은 각각 25억·17억 흑자입니다. 본업이 아닌 영업 밖(지분·금융자산 평가, 환이익 등)에서 이익이 났다는 뜻으로, 이 이익이 일회성이라면 다음 분기에 순이익도 적자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영업외손익 항목을 사업보고서 주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DART 분기보고서 2026 / 추정

52주 최고 32,700원 → 저점 4,550원, 약 -86% 급락 이력

올해 2월 4일 32,700원까지 올랐다가 7월 30일 4,550원까지 약 86% 추락했습니다. 테마 급등 후 붕괴를 이미 한 번 겪은 종목으로, 현재 9,920원도 고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금의 반등 역시 무상증자·로봇 테마 수급 성격이 강해 같은 변동성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증권 일봉 2026.02~11

거래량 20일 평균의 15.6배 폭증 — 단기 매매 집중

당일 거래량이 20일 평균의 15.6배, 거래대금은 평소 16억에서 277억으로 폭증했습니다. 최근 20일 중 ±5% 이상 변동일이 5일입니다. 무상증자·상한가 재료에 단기 자금이 몰린 구간으로, 재료가 소화되면 거래가 급감하며 가격이 되돌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증권 일봉 2026.11

무상증자는 가치를 늘리지 않는다 — 권리락 착시 주의

1주당 1주 무상증자는 주식 수를 2배로 늘리고 주당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는 회계적 분할입니다. 기업 가치는 변하지 않으며, 권리락 이후 '싸 보이는 착시'가 걷히면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자체를 실적 개선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출처 · DART 2026.11.25

신사업은 아직 '기대'이지 '매출'이 아니다

북미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는 '평가 진입', 전장은 '양산 돌입' 보도 수준으로, 실제 수주 금액이나 매출 기여가 공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도 'Not Rated(투자의견 없음)'입니다. 기대가 선반영된 가격이라 실제 숫자가 기대에 못 미치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출처 · 유진투자증권 리포트 2026.08.26·11.17 / 프라임경제 2026.10.01

낮은 영업이익률 — 외형은 커도 남는 게 적다

2023~2025년 영업이익률이 1.19~2.99%에 머뭅니다. 부품을 세트사에 납품하는 구조에서 단가 협상력이 약하고 검사장비 매출 변동이 겹쳐 수익성이 쉽게 흔들립니다. 매출이 늘어도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약점입니다.

출처 · DART 감사보고서 2026.03.18

공시 타임라인 최근 9개월 DART

접수일	보고서명	제출인
2026.11.25	주요사항보고서(무상증자결정)	액트로
2026.11.25	주권매매거래정지 (무상증자)	코스닥시장본부

2026.11.13	분기보고서 (2026.09)	액트로
2026.08.14	반기보고서 (2026.06)	액트로
2026.05.14	분기보고서 (2026.03)	액트로
2026.03.19	사업보고서 (2025.12)	액트로
2026.03.18	감사보고서제출	액트로
2026.03.12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액트로
2026.03.12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율공시)	액트로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서류검색.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는 회색 참고용.

공시 흐름 해석

최근 9개월 공시를 시간순으로 읽으면 **'지분 투자(3월) → 자사주 소각(10월, 보도 기준) → 무상증자(11월)'**로 이어지는 주주환원·사업확장 흐름이 보입니다. 3월에는 타법인 주식·출자증권 취득을 두 건 결정했는데, 이는 신사업(전장·로봇) 확장을 위한 지분 투자로 추정되며 26년 상반기 영업외이익(순이익이 영업이익을 웃도는 현상)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월 자사주 전량 소각 보도와 11월 100% 무상증자 공시는 주가가 저점에서 올라온 뒤 나온 주주환원 카드로, 주주친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다만 **본업 영업이익이 1·2분기 연속 적자인 상황에서 나온 주주환원**이라, 회사가 '실적'보다 '주가·수급'으로 시장과 소통하는 구간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무상증자 공시와 함께 주권매매거래가 30분 정지된 것은 절차적 사안입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 목표주가 없음 · 방향과 조건만

강세 시나리오

3분기·4분기 본업 영업이익이 흑자로 복귀하고, 북미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수주나 전장부품 양산 매출이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로 확인.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도 로봇·AI 테마가 유지. 이 경우 로봇 액추에이터 성장주로 재평가돼 현재 밸류에이션이 상향될 근거를 갖는다. **조건: 신사업 수주 공시 + 영업흑자 복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

기본 시나리오

본업은 스마트폰 수요에 따라 분기별로 흑자·적자를 오가고, 신사업은 2027년 이후 매출로 가시화. 주가는 무상증자 권리락과 로봇 테마 강도에 따라 크게 출렁이며 넓은 박스권. 영업외이익의 지속 여부가 순이익을 좌우한다. **가장 가능성 높은 경로.**

약세 시나리오

3분기에도 영업적자가 이어지고 영업외이익마저 줄어 순이익도 적자 전환. 로봇·AI 테마가 식고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가 걷히며 단기 자금 이탈, 거래량이 평소 수준(하루 16억대)으로 급감. 이 경우 7월 저점(4,550원) 방향으로의 되돌림 가능성. **올해 2~7월에 실제로 일어난 경로.**

앞으로 확인할 것

1. 26년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복귀하는지 (분기보고서) — 2분기 연속 적자 뒤라 더 중요
2. 영업외이익(지분·금융자산 평가, 환이익)의 정체와 반복 가능성 — 사업보고서 주석 '금융수익·기타수익' 확인
3. 북미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전장부품의 실제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 발생 여부
4. 100% 무상증자 신주 상장일과 권리락 이후 주가 흐름 (12월~)
5. 삼성 갤럭시 차기 플래그십의 카메라 사양·채택 여부 — 본업 매출의 핵심 변수
6. 로봇·AI 테마 수급 강도와 코스닥 지수 반등 여부 — 이 종목 주가의 선행 지표

오픈팩트의 결론

역대 최대 매출(2,449억)과 로봇·전장이라는 성장 스토리, 100% 무상증자·자사주 소각이라는 주주환원이 겹쳐 시장의 관심을 받는 종목입니다. 다만 **2026년 1·2분기 본업이 연속 영업적자이고, 순이익 흑자는 영업 밖 이익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 핵심 약점입니다. 신사업은 아직 '평가 진입·양산 돌입' 보도 수준으로 매출로 확인된 숫자가 없고, 증권사 리포트도 'Not Rated'입니다. **무상증자는 주식을 쪼개는 회계 처리일 뿐 가치를 늘리지 않으며, 올해 2월 32,700원에서 7월 4,550원으로 무너진 경험이 이 종목 주가가 실적보다 테마·수급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지금 가격은 '회사가 좋아져서'보다 '무상증자와 로봇 기대가 겹쳐서' 만들어진 가격입니다.

시가총액 주가×주식수, 시장이 매긴 회사 몸값 · **PER** 주가가 순이익의 몇 배 · **PBR** 주가가 순자산의 몇 배(1배 미만이면 장부보다 싸게 거래) · **부채비율** 빚÷자기자본(200% 초과 주의, 400% 이상 위험) · **당좌비율** 즉시 현금화 가능 자산÷1년 내 갚을 빚(100% 미만이면 빠듯) · **유상증자** 새 주식을 찍어 돈을 받는 것(기존 주주 지분 희석) · **무상감자** 주식 수를 줄여 손실을 터는 절차(손실을 주주가 부담) · **전환사채(CB)**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빚(전환되면 지분 희석) · **수주잔고** 계약은 했지만 아직 매출로 안 잡힌 물량 · **외국인 소진율** 외국인이 살 수 있는 한도 중 실제 보유 비율 · **거래대금** 주가×거래량, 그날 실제로 오간 돈의 크기 · **밸류체인** 원료→부품→완제품→고객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사슬

본 자료는 공개 정보(DART 전자공시, 공개 재무데이터, 언론보도)를 정리한 참고용 자료이며 투자 권유·자문이 아닙니다. 재무 수치는 DART 공시 기반 공개 데이터를 옮긴 것으로 원문 재무제표와 표기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수주·계약 금액 일부는 언론 보도에 근거해 공시로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시세·지표는 표기된 기준일 종가 기준 이며 이후 변동됩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